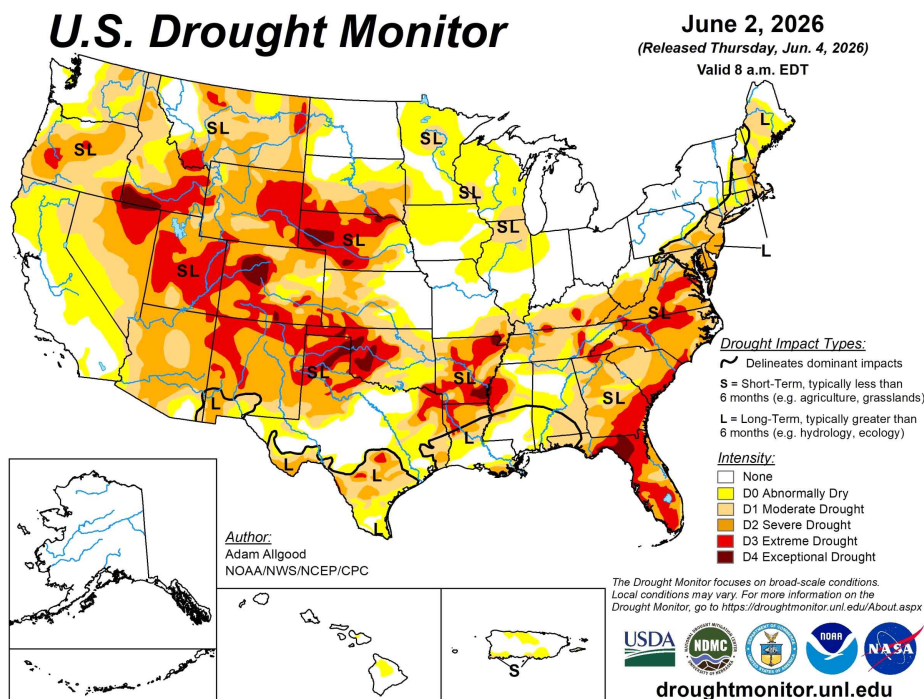


6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23)

□ 미국 기후 현황(2026/5/31-2026/6/7)

전국 중부 지역의 폭풍우는 어느 정도 가뭄 완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돌발 홍수, 강풍 피해, 큰 우박을 동반한 국지적으로 심한 뇌우도 발생시켰다. 또한 일부 지역은 비가 피해 가면서, 방목지와 목초지가 불량한 상태로 가뭄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원, 중서부 북부, 중부 걸프 연안 지역 곳곳에 2~4인치의 강우량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총 강우량은 매우 가변적이었다. 미국 동부와 서부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나머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전혀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몬태나와 뉴멕시코 일부, 그리고 북부 태평양 연안 및 그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서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동부 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만 내렸는데, 예외적으로 중부 대서양 주들에서 뉴잉글랜드 남부에 이르는 지역은 거의 완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동부의 건조함은 5월 말 강우가 가져온 가뭄 완화 효과의 일부를 되돌리기 시작했으며, 서부의 건조함은 여름철 물 공급에 대한 국지적·지역적 우려 속에서 관개 수요를 증가시켰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일부, 그레이트베이슨, 산간 서부 지역과, 아울러 북부 및 중부 평원과 중서부 북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반대로 남부 플로리다를 제외한 남부 대서양 주들에서는 평년보다 서늘한 상태, 즉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낮은 상태가 지배적이었다. 리오그란데 계곡(Rio Grande Valley)과 태평양 북서부에서 북부 고지대 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흔하게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2026/6/1-2026/6/7)

해당 주간에는 미국의 주요 농업 지역 전반에 다양한 기상 조건이 나타났다. 미국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북부 평원과 미시시피강 상류 계곡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6° F 높은 기온 편차가 기록되었다. 북부 평원의 따뜻한 날씨는 작물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여, 옥수수과 대두의 출현율이 전주 수치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조지아 일부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 주들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으며, 이곳의 기온은 평년보다 6-8° F 낮았다. 한편 중부 및 남부 평원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일부 국지적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주간 강우량의 두 배가 넘는 비가 기록되어 토양 수분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북부 평원과 미시시피강 중류 계곡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강우가 나타난 반면, 미국 동부와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한 상태가 지배적이었다.

□ 세계 기후 현황(2026/5/31-2026/6/6)

■ 유럽: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5월 말의 폭염을 끝내고, 등숙 후기의 겨울작물과, 아울러 영양생장기의 봄 곡물과 여름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켰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일련의 한랭전선이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대부분의 주요 재배 지역에 다소 더 서늘한 기온, 즉 평년보다 1~3° C 높은 기온을 가져왔다. 주간 강우량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10~60mm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 북부, 서부 발칸, 루마니아 중부에서는 75mm 이상의 많거나 과도한 비가 내린 지역도 관측되었다. 이 수분은 생식생장기인 북부와 북동부의 겨울밀 및 유채, 등숙기인 서부와 남부의 겨울밀 및 유채뿐 아니라, 영양생장기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도 시기적절했다. 그러나 유럽 약천후 연구소는 폭우로 인해 중남부 및 남동부 유럽에서 국지적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스페인의 건조하고 더운 상태, 즉 평년보다 3~6° C 높고 안달루시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 C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는 상태가 겨울 곡물의 건조와 수확에는 유리했지만, 영양생장기의 옥수수, 면화, 해바라기에 대한 관개 수요는 증가시켰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 관측소 자료는 누락되었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분석 보완을 위해 레이더 및 위성 자료가 활용되었다.



■ 구소련(서부):

흑해 중부 연안에서 러시아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지역 대부분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배적이었다. 모니터링 기간 후반에 보다 건조한 날씨가 농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했으나, 주 초반의 기상 교란이 흑해 동부 연안에서 러시아 불가 지구에 이르는 지역에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를 발생시켰으며, 강우량은 10~40mm, 국지적으로는 그 이상이었다. 한편 두 번째 저기압대가 다뉴브강 하류 계곡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벨라루스 남부에 10~60mm의 강우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에서는 여름작물 파종 지연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생식생장기인 북부의 겨울작물에서 등숙기인 남부의 겨울작물에 이르기까지 수확량 전망은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에서 중앙 지구에 이르는 지역의 더 건조한 날씨(대부분 10mm 이하의 강우)가 농작업 재개를 가능하게 했고 겨울작물 발달을 촉진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동쪽으로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평년보다 서늘한 상태, 즉 평년보다 2~5° C 낮은 기온이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이 생육의 핵심적인 온도 민감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고온 스트레스를 막아주었다.

■ 호주:

한랭전선이 호주 남부 지대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익한 소나기와 뇌우를 발생시켰다. 서호주의 주요 겨울작물 지역의 강우량은, 이 주의 북부 경작지에서 국지적으로 25mm가 넘는 강우량이 보고되기는 했지만, 10mm 이하로 대부분 적었다. 에어 반도에서 남호주 남동부 경작지에 이르는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총 5~45mm를 기록하여 겨울작물 활착에 유리한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빅토리아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광범위하지만 매우 가변적인 강우가 나타났는데, 빅토리아주는 5~60mm, 뉴사우스웨일스 중부는 5~25mm를 기록했다. 이 강우는 후자 지역의 가뭄을 완화하고 전자 지역의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어서 늦겨울 작물의 파종에는 유리했지만, 지속되고 있는 장기 가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호주 북동부 사분면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 낮았던 것을 제외하면 호주 전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대체로 평년에 가까웠다.

■ 동아시아:

이 지역 대부분에서 광범위한 강우가 지속되었고, 기온은 평년보다 1~4° C 높았다. 중국 남부와 남동부에는 보통에서 많은 강우, 즉 25~100mm의 비가 내려 벼 이앙과 초기 분얼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는 한편, 여름작물의 활착도 지원했다. 더 북쪽에서는 유의한 강수대, 즉 10~100mm의 강수가 산둥에서 랴오닝과 지린을 지나 헤이룽장까지 이어지며, 대두, 옥수수, 그 밖의 초기 생육기 작물에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했다. 낮 최고기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북부와 북동부는 섭씨 20도대 후반에서 30도대 중반의 범위를 보였고 중국 남부와 동부 지역은 30도대 초반에서 후반에 이르렀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에 뚜렷한 대조가 나타났다. 북한은 25~100mm의 강우를 받았지만, 남한은 남해안의 국지적 소나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본은 열대성 저기압 ‘장미’의 영향으로 동부 해안선을 따라 훨씬 더 많은 강우가 나타났으며, 이 저기압은 많은 강수대, 즉 100~400mm의 비를 가져왔다. 한반도와 일본 전역의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20도대 후반에서 30도대 초반의 범위를 보였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